

### 2004 만해축전 학술 세미나 눈길 끈 논문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민족문화추진회 후원: 문화관광부

'2004 만해축전'은 만해 스님 열반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학술세미나들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치러졌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현대사와 종교사상' '만해 한용운의 문학' '현대사와 선사의 경계' '만해사상과 통일문학' '한국 현대불교문학의 현실과 전망' 등을 주제로 총 21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이에 앞서 2·3일에는 만해마을에서 '시조문학의 정체성과 그 현대성'을 주제로 3편, 10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만해연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의 만해 연구 흐름을 소개한 이원길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의 '북한에서의 만해', '심현담주해'를 만해 선사상의 요체로 파악한 서준섭 강원대 교수의 '한용운의 불교관계 저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만해 스님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본 구모룡 해양대 교수의 '만해사상의 동아시아적 맥락' 등이 관심을 모았다. 또 데이비드 맥켄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나룻배와 행인 연구'는 번역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네 편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다.



8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만해 선사 서거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1986년 '민족제일주의' 영향... 문학성 극찬

『북한에서의 만해』(이원길 교수)

북한에서 만해 스님이 문화사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 들어이다. 그 전에는 문화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 원인은 북한의 문예정책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당의 노선과 지도사상의 변화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문화사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1966년에 나온 김일성대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카프 계열이 해방 전 문학의 주류를 형성하는 반면, 80년대 초반의 <조선문학사>에는 '김일성이 조지 영도한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혁명문학'이 강조된다. 이런 변화 배후에는 극단화된 김일성 개인숭배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풍도 속에서 만해 스님의 작품은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86년 김정일이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만해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민족제일주의는 계급이나 공산주의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이념이다. 그런 변화가 반영된 2000년 조선사회과학원 <조선문학사>에는 이광수, 최남선, 윤동주 등과 더불어 만해 스님의 작품도 실리게 된다.

이에 따르면 만해 스님은 '일제식민지 통치하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애국독립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문학'이라는 장(章)에서 첫 번째 시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애국정열을 토로하는 정서적 지향성에 맞는 독특한 시 형식을 창조, 사색이 깊고 철학성이 강하며 시적 논리가 심오'하며 '산문식이지만 운율미와 음악미를 잘 살려 시문학의 애국정열을 살렸다'고 극찬하고 있다. (하버드대 국제비교한국학회 주관 '만해 한용운의 문학' 세미나, 8월 13일, 만해마을)

### 민족주의 보다 불교 가르침 우선적 반영

『만해사상의 동아시아적 맥락』(구모룡 교수)

만해 스님의 사상은 복잡하여 '민족주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스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면적이고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만해 스님의 민족주의를 기정사실화 하게 되면 그것이 형성되고 전개·변형되는 과정이 간과되고 왜곡될 우려마저도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의 편견을 버리고 만해 스님을 보게 되면, 중국 계몽사상가 양계초(梁啓超, 1873-1929)와 불교의 영향이 부각된다. 특히 불교사상은 만해 스님에게 민족주의보다 상위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양계초의 근대화와 불교에 대한 생각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영향

은 <조선불교유신론>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 스님은 불교를 통한 근대화를 주장한다.

민족주의에 어긋나는 만해 스님의 언급은 일본과 관련하여 몇 차례 발견된다. 1910년 승려의 대처 허용을 위한 건의, 1908년의 일본행을 회고한 글(1933년), 1938년 <불교>에 실린 '국민'의식 고취를 주장하는 글, 중일전쟁에서 일본을 응호한 1937년 '지나사변과 불교도'라는 <불교>의 글 등이 그 예다.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에 걸맞지 않은 이 같은 행동들은 사사우의 불교정신에 입각한 만해 스님의 세계인식상 한계 또는 만해 스님의 민족주의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민족문화추진회 주관 '만해 선사 서거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8월 10일, 프레스센터)

### 불교사상 연구 핵심 '심현담 주해'에 담겨

『한용운의 불교관계 저술 연구 현황과 과제』(서준섭 교수)

만해 스님의 저술 가운데 절반이 불교에 관련된 것인 만큼 스님의 불교사상 연구를 통해서만 스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해 스님의 불교 관련 저술 가운데 특히 유의미한 것은 <심현담(心玄談) 주해(註解)>다. 왜냐하면 <심현담 주해>(1925년)는 만해 스님의 선에 대한 유일한 저술일 뿐 아니라 스님이 깨달음(1917년 오도송)을 얻고 난 후에 저술된 것으로 만해 선사상의 요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현담 주해>는 조동승우설에 근거한 전통적인 <심현담> 해석으로부터

탈피해, 김시습 등 이전 주석자들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주해가 돋보이는 책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현 지향적 사상 담아낸 독자성까지 발견된다. 이런 관점에서 <심현담 주해>는 선사로서 만해 스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저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스님의 실천적 성향은 선학의 참된 응용에 대한 관심과 사유의 실천으로 발전하는데, 1933년 스님이 <유마경> 번역에 착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만해 스님의 성숙한 선적 사유는 같은 해 완성된 <님의 침묵>의 작품들에 나타난다. (민족문화추진회 주관 '만해 선사 서거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8월 10일, 프레스센터)

### '상징' 내포한 시어 외국어 번역 오류 많아

『나룻배와 행인 연구』(데이비드 맥켄 교수)

만해 스님의 시는 당대 타고르나 에이츠 못지않은 훌륭한 시인이다. 그런데 세 명 가운데 만해 스님만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노벨상이 문학성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만 만해 스님의 시가 해외에서 제대로 알려져 있기는 한지 여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만해 스님의 시를 외국에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번역이다. 그러나 기존 번역은 스님의 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스님의 주옥같은 작품인 '나룻배와 행인'을 예로 들면, 이 시에는 공감각적 효과, 농부의 춤사위, 장고 놀이

와 같은 느낌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번역된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살아있지 않다. 시의 연 구분을 무시해 본디 내 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를 하나의 연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The Ferryboat and the Traveller'라는 제목번역에서도 관사를 넣어 산문의 느낌을 주는 등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산문 느낌을 주는 번역이 문제되는 까닭은 '나룻배'와 '행인'처럼 많은 상징을 내포하는 단어를 표면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저해하는 치명적 오류다. (하버드대 국제비교한국학회 주관 '만해 한용운의 문학' 세미나, 8월 13일, 만해마을)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5>



#### 부분과 전체

생명과학은 생물체에 있어서의 소통을 다룬다. 개체와 개체 간의 소통, 장기와 장기 간의 소통, 세포와 세포간의 소통, 세포 내의 소기관간의 소통 등 그 모양은 다양해도 결국 생명과학이 다루고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생물체의 의사소통 문제이다. 소통이라는 것은 흐름이 자 관계일 뿐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계가 고정되거나 닫혀있을 때 우리는 병들었다고 말하게 된다. 소통하지 못하여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면 원래의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에 나라고 하는 것도, 너라고 하는 것도 단지 그렇게 불리게

흐름을 다루는 점에서 조금도 불법과 닮아 있지 않다면 전체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물길을 파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농사를 잘 짓고자 할 때 부처님 말씀에 의한 지혜로는 전체 논법을 바라보아 필요한 방향과 정도로 물을 흐르게 하여 모두가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생명과학이란 농부는 당장 눈앞의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흐르게 하지만 그들이 그냥 하수도로 빠지는지, 집안으로 흘러들어 엉망진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이란 소통을

#### 소통과 흐름, 집착·욕망 없을때 원만

#### 생명과학은 인연관계의 전체 못 봐

된 관계의 모임(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 금강경에서도 강조하듯 집착하여 머무르지 말라고 한다. 단순한 관계의 덩어리기에 계속 변화할 뿐인 어느 특정 모양(相)에 대하여 그것을 고정된 상(相)으로 본다면 곧 어래를 본다고 하니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것이 마음

이건 몸이건 간에 머무름에 있다. 그렇다면 결국 생명과학은 관계의 흐름을 다루는 것이기에 부처님 말씀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요즈음 복제 문제를 비롯하여 생명과학에 대한 논쟁이 사회문제로서 이야기 되는 것일까.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인연에 의하여 변화하는 관계로서 보라고 하였고 이를 지혜로서 알 수 있음을 말하셨지만, 불행히도 생명과학은 비록

위한 물길을 트는 것이기에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이다.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막힌 것을 뚫어 무조건 흐르게 하여 소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이나 흐름이란 것에 또 다른 머무름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머무르면 법상(法相)이 되어 경계해야 할 것임은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과 관계의 흐름이란 아무리 좋은 소통과 흐름에 있어서도 머무르지 아니함을 말하기에 생명과학이 환상과 같은 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에 탐착하여 전체적 모습을 보는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 제3기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그릇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관계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예방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 일 시: 2004년 9월 16일(수) ~ 11월 3일 (90시간)
- ◆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 사거리) ◆ 인 원: 30명(선착순)
- ◆ 문 의: 02-738-5586, 5568 / 상담소: 02)735-0406~7
- ◆ 수강료: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16일	1. 성·가정폭력법 해설 2. 남녀평등과 여성의 미래	9월 17일 3. 가족구도와 가치변화 4. 한국 가족의 현주소
2.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		
9월 23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6. 가정폭력	9월 24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9월 24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10월 8일 9. 부부의 갈등 및 외도, 이혼가정상담 10. 여성역의 변화와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10월 5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10월 16일 14. 이혼의 실태와 재판문제
10월 15일	12.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문제	10월 22일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10월 16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10월 22일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료상담		
10월 13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10월 22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10월 13일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	10월 30일 18. 전화상담의 기법과 운영사례
10월 25일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10월 30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10월 27일	23. 경전에 나타난 상담	11월 2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11월 1일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11월 3일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적멸보궁 문수도량 성지참배 입시생·학업자를 위한 기도

문수보살님의 대지혜 위신력이 충만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입시생과 학업자를 위한 적멸보궁 문수도량 참배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대원력 성취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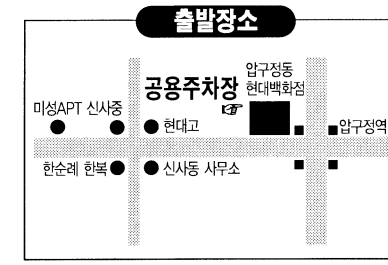
- ✿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 2004년 8월 21일(토) 오전 9시 출발
- ✿ 태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 2004년 8월 28일(토) 오전 9시 출발

- 매주 문수도량 참배 출발 : 2004년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함.
- 출발장소 :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공용주차장

①예 상: 입시생 기도를 위한 불치님 혹은 입시생에 한함.

②동참금: 2만원

- \* 출발시 한강방생법당 방생기도 봉행
- \* 문수보살 예찬 문수기도 축원
- \* 점심공양은 본사에서 산채 정성 자연식으로 준비합니다.
- \* 서울 도착은 당일 오후 7시 ~ 8시 예정
- \* 차량준비 관계로 출발 1일전까지 사전에 전화 접수 바랍니다.



###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성지순례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3446-2158,2185, 3443-9871~7, 511-6210~5 FAX:511-6214